

지역 소식통

고창군 8억4000만원 투입  
해양쓰레기 정화 '구슬땀'

고창군이 쓰레기 없는 청정 바다 만들기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고창군은 올해 총 8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해 청정해안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정화사업은 바다환경지킴이, 해양쓰레기 폐기물처리,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바닷가 청소장비 유지비 지원 등이다. 올해 약 600여 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바다환경지킴이 36명은 각 해안별로 배치돼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업무를 맡는다. 지킴이는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대국민 계도와 사전예방 활동도 수행한다.

해양쓰레기의 피해는 심각하다. 어린물고기와 알을 보호하는 서식처가 쓰레기에 덮히면서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이에 더해 육상의 쓰레기 처리비는 톤당 30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바다쓰레기 처리비는 침체어망의 경우 2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긴급복지지원

부안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위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등을 실시한다.

재산기준은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기준을 신설해 3500만원을 재산기준에서 차감하게 되며 금융재산 산정시 가구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 과학산단 '잘나가네'

### 정읍시, 로이테크 등 입주 희망 3개 기업과 투자협약 총 1641억원 투자,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기대감

정읍시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첨단과학산단단지 새롭게 입주 희망하는 기업 3개사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유)로이테크 운기주 대표, (유)엘앤에스 김완식 대표, 비가드(유) 이남주 대표가 참석했다.

(유)로이테크는 에너지·환경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으로 1,573억원을 투자해 첨단산단단지 내 10,899㎡ 부지에 20MW급 수소연료 전기발전소를 신축한다.

(유)엘앤에스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수배전반과 분전반, 태양광 LED 등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4,637㎡ 부지에 35억원을 투자해 첨단과학산단단지 동지를 둔다.

또한, 익산시 낭산면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비가드는 양봉 기자재 분야에 특허받은 제품을 본격 생산하기 위해 9,421㎡ 부지에 33억원을 투자한다.

이번에 투자를 약속한 3개 기업은 2021년까지 1,641억원을 투자하고 약 35명을 신규 고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남권 중심지역에 위치한 첨단과학산단단지는 수도권에서 KTX와 SRT 등의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1시간 20분이면 접근이 가능하다.

또, 광주·전주 등 인근 대도시와도 40분 내에 연결되는 등 편리한 교통과 함께 바로 인근에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3개의 정부출연연구소가 입주해 있어 기업의 R&D(연구개발)에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좋은 입지 여건과 함께 입주한 기업에 대해 분양가의 20%의 입주보조금과 시설 투자지원, 이차보조금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재지정되어 5년 동안 각종 세제 혜택과 직접 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경쟁 입찰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14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분양계약과 공장 설계 중 그리고 투자협약한 업체 등을 포함한 분양률은 95%를 넘어선 상태이다.

유진섭 시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투자를 결정한 기업 대표들에게 감사하다"며 "기업 중심의 마인드로 기업하기 좋은 산업환경을 조성해 투자기업들이 정읍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서로 마주 보지 않도록 한 방향 일렬식사로 전환하고 식사 중 대화 금지에 동참하도록 했다.

## 정읍시, 고창도 '사회적 거리두기'

###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권고...위반 땐 집합 금지 행정명령 발동

정읍시는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고창도 사회적 거리두기'(4월 5일까지 15일간)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타지역의 종교시설과 사업장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고창도 특별 캠페인이다.

시는 이번 정부 답회가 지역감염을 차단하고 일상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 추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계 기관과 기업, 각종 시설 등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전달하고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는 4월 6일로 예정된 각급 학교의 개학 이전 건강한 사회복원을 목표로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을 강력히 권고할 방침이다.

대상시설은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을 비롯해 PC방, 노래방, 학원, 영화관 등 밀폐된 공간에서 신체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환경의 시설이다.

시는 강력한 현장점검을 통해 대상 시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 등을 발동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시설에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기업체와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대면 회의·보고 자제와 유증상자 출근 자제, 온라인·재택근무 활성화, 점심시간 시차 운용, 회식 등 집단 모임 자제 등을 독려한다. 시는 정읍시청 내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한다. 민원인 접촉이 많은 종합민원실에 투명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하고 간단한 서류발급 민원은 가급적 '민원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서로 마주 보지 않도록 한 방향 일렬식사로 전환하고 식사 중 대화 금지에 동참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 참뽕비누, 대구지역 의료진에 격려품 전달

### 참뽕 비누세트 1000개 지원

부안군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 의료진에게 부안의 특산품인 참뽕(오디, 뽕오, 누에)비누세트 1,000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격려품은 방역 최전선에서 힘쓰고 있는 대구시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함으로, 부안 참뽕비누는 청정 부안의 미네랄이 풍부한 토질에서 자란 오디뽕과 그 부산물인 뽕잎을 활용함과 동시에 누에를 활용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능을 담고 있는 상품으로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 지원해 부안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부안군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 의료진에게 부안의 특산품인 참뽕비누세트 1,000개를 지원했다.

으면 하는 기쁜 마음으로 준비 하겠다"며 "이 상황을 헤쳐 나갈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황이 좋아지

면 산들바다가 두투 어우러진 청정부안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마음도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군, 공공건설공사 활기...직업재활시설 등 7개

고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와 사회복지, 농업발전 등에 필요한 공공건설공사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은 물론 주민 모두에게 필요한 문화시설과 장애인

인 주간보호·직업재활시설, 무장교라 자연장지 조성사업 등의 건설공사를 본격화 하면서 주민중심형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현재 건립 중인 사업은 고창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인

인 주간보호·직업재활시설, 무장교라 자연장지 조성, 경관작물 다목적 체험관,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 등 모두 7개(152억원)다. 이외에도 고창 복합문화도서관(가칭) 건립(128억원), 남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25억원) 등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 및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내실 있게 추진 중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군 '코로나 극복' 전통시장사용료 50% 감면

부안군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전통시장사용료 50% 감면을 시행한다.

전통시장사용료 감면은 전국에 확산 중인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해 부안지역 전통시장(부안·쑤포)에 입점한 모든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감면해 코로나19로 경영악화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추진된다.

군은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사용료 50%를 감면하고 코로나19 확산 여건에 따라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소비가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부안사랑상품권 특별할인행사(5%~10%)를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또 군은 지원대상을 확대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특례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 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이영원 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